

강진 옴천초, 옴넛골산촌유학센터 협력 겨울캠프 시즌2 운영

“체험 가득, 놀이 가득, 자연과 함께한 농산어촌유학생 모집 행복 캠프” 옴넛골 감성 시그널 겨울방학 캠프 시즌2,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호응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옴천초등학교(교장 김대성)는 전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옴넛골산촌유학센터(센터장 김영신, 표세진)와 협력하여 옴넛골 감성 시그널 겨울 캠프 시즌2를 운영하였다. 전라남도교육청과 강진교육지원청의 지원으로 지난 여름 캠프에 이어 2회기를 맞이한 옴넛골 감성 시그널 캠프는 전국에서 약 500명이 넘는 인원이 지원했다.

옴천초는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 각지 캠프 신청자 중에서 총 22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지난 1월 22일(월)~1월 27일(토)까지 2박 3일씩 2회기에 걸쳐 겨울 방학 캠프를 실시하였다.

옴넛골 감성 시그널 겨울방학 캠프 시즌2는 도시의 아이들을 문화예술 감성이 풍부한 남도답사 1번지 강진과 천연의 자연환경을 가진 옴천초로 초대해 자연 속에서 학생들이 맘껏 뛰놀고 지역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고 작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도시 학부모에게 농산어촌 유학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실시하였다.

시하였다.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는 다양한 체험 속에서 즐거움과 배움을 통해 행복한 인성과 삶의 역량을 기른다” 캠프의 목적에 따라 전통놀이, 뉴스포츠 활동, 손두부 만들기, 딸기 고추장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승마 체험, 캠프파이어, 쿠키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즐거운 놀이와 삶의 역량이 신장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계획되었다.

캠프 첫째 날에는 캠프 입소식 후 성진 농항월촌마을을 방문하여 수작업으로 손두부와 딸기 고추장을 만들고, 직접 만든 손두부와 고추장으로 두부김치 및 떡볶이를 만들어 먹는 활동은 친구들과 협력하여 함께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게 했다. 또한 옴넛골산촌유학센터에서 친구들과 함께 보내봄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길렀다.

둘째 날에는 강진의 특색 프로그램으로 청자만들기 체험이 강진청자박물관에서 이루어졌다. 강진교육지원청 이병삼 교육장님은 ‘청자 만들기’ 체험 때 방문하여 “아이들이 청자 만들기 체험을 비롯한 옴넛골 유학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문화적 소통에 관심을 갖고, 개인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값진 경험으로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오후에 아름다운 옴천초의 교정에서 이루어진 승마 체험과 구운 고구마와 밤 먹기, 연날리기를 통해 학생들은 동물과 함께하는 교감하고 따뜻한 노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밤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푸소체험)인 엄지 마을에서 별 헤는 밤 캠프파이어 행사를 운영했다.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는 “캠프파이어가 전하는 따스함은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고,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 학생, 교사 사이의 마음의 거리를 가깝게 만드는 순간을 선물했다”고 말했다. 특히 마시멜로 구워 먹기·불꽃놀이·고구마 구워 먹기 등은 캠프에 참여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색다른 추억을 선물했다.

마지막 날에는 작전 수경당에서 학생들은 ‘쿠키 만들기’, ‘바다캔들 만들기’ 체험이 이루어지고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작은학교교육과정과 학교특색프로그램, 농산어촌유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 설명회를 통해 도시 학부모들은 작은학교의 장점과 학교교육과정, 다양한 특색 교육활동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는 자녀의



농산어촌유학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져 캠프 참여자 중 3명의 학생이 추가로 옴넛골산촌유학센터로 농촌유학을 희망 신청했고 이는 학교 복식학급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마리를 아프게 만드는 소음이 없이, 넓은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어 좋아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만날 생각에 긴장되고 설렘”이라며 옴천초등학교와 옴넛골산촌유학센터에서 다양한 체험이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옴넛골 감성 시그널 겨울 캠프의 수료식에서 옴천초등학교 김대성 교장은 “작은 학교라서 고민되는 것들보다, 작은 학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며 “도시에서 농

촌으로 유학 온 학생들은 자연 속에서 자라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과 마음이 넓어지며 즐거움 속에 배운다” 이는 미래사회를 주도할 아이들의 협력적 인성과 삶의 역량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번 캠프 후 농촌유학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학교 주변에 빈집리모델링과 모듈형 주택 등 정주여건이 개선된다면 옴천초로 오고 싶은 도시 학부모와 학생이 늘어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한 군청 등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며 이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과 학교의 위기를 막는 한 방법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강진=김영일기자

영광교육청, 초등돌봄교실 행복도시락 현장 점검 실시

영광 묘량중앙초 방문해 전반적인 운영 사항 점검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고광진)은 지난 1일 묘량중앙초를 방문하여, 돌봄교실 운영 프로그램 및 행복도시락 등 돌봄교실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점검하였다.

이날 점검에 함께 참여한 교육장은 행복도시락 위생 및 안전관리, 영양 균형 상태, 보존식 제공 현황 등을 점검하고,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프로그램도 함께 했다. 또한 차담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도 가졌다.

차담회에 참석한 묘량중앙초 학부모 김**씨는 “방학 중에도 학기 중처럼 영양을 골고루 갖춘 행복도시락을 제공받아 자녀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고광진 교육장은 “방학 중에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행복도시락 조리 및 배식에 참여하는 교직원, 지역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남은 방학기간에도 학부모가 만족하고 학생들이 행복한 돌봄교실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여수교육청,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서금열)은 2일 여수서시장과 여수수산시장 2곳에서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진행하였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이번 설 명절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통해 직원들이 대형마트나 온라인 장보기보다 전통시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필요물품을 시장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매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직원들은 “편소 편리하다는 이유로 대형마트와 온라인 장보기를 주로 이용했었는데, 전통시장에 와보니 더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전통시장만의 정과 재미를 느낄 수 있어 좋았다”, “경기점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금열 교육장은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지역 전통시장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솔선수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야한다” 강조의 말을 전했다.

여수=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